

경제주평

- 對美 수출 구조 변화와 시사점
- 對美 우회 수출 영향, 예상보다 클 수 있다!

목 차

■ 對美 수출 구조 변화와 시사점 - 對美 우회 수출 영향, 예상보다 클 수 있다

Executive Summary	i
1. 개요	1
2. 트럼프 관세 정책과 배경	2
3. 對美 수출 구조 분석	5
4. 시사점	8

□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 제 연 구 실 : 신 지 영 연 구 위 원 (2072-6240, jyshin@hri.co.kr)
노 시 연 연 구 위 원 (2072-6248, syroh@hri.co.kr)

Executive Summary

□ 對美 수출 구조 변화와 시사점

- 對美 우회 수출 영향, 예상보다 클 수 있다!

■ 개 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통상 전쟁이 격화됨에 따라 한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출이 둔화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 본격화한 가운데 상대국들이 보복 조치로 대응하면서 글로벌 통상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에 2025년 3월 글로벌 무역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역대 최고치인 603.1p를 기록하였다. 이처럼 통상 환경이 악화되면서 한국 경제의 성장을 주도해 온 수출의 둔화 가능성 확대 및 이에 따른 경기 하방 압력 증대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배경에 대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구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한국의 對美 수출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는 2024년 한국의 對美 수출액이 역대 최고인 약 1,280억(전체 수출액의 18.7%) 달러를 기록하는 등 對美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경제에 미칠 타격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트럼프 관세 정책과 배경

① 현황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 무역 구조 재균형화, 국가 안보 강화, 자국 산업 보호 등의 명목하에 **관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캐나다·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한 것을 시작으로 철강·알루미늄 등의 품목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10~125%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 미국의 관세 부과 현황 >

발효일	국가·품목	내용
2월 4일	중국	10% 추가 관세 부과
3월 4일	중국	10% 추가 관세 부과
	캐나다·멕시코	25% 관세 부과
3월 12일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
4월 2일	베네수엘라산 석유·가스 수입국(중국, 인도 등)	25% 관세 부과
4월 3일	자동차	25% 관세 부과
4월 5일	전 세계 국가	10% 보편 관세 부과
4월 9일	57개국(중국, 베트남, 한국 등)	11~125% 상호 관세 부과

자료 : 보도자료 종합.

주1) 2025년 4월 14일 기준.

2) 구리·의약품·반도체·목재,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품목, 금괴, 에너지 및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특정 광물, 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칩, 반도체 제조 장비 등 일부 품목은 제외.

3) 상호 관세의 경우, 중국을 제외한 국가는 90일간 유예.

② 배경

트럼프 행정부가 공격적인 관세 정책을 펼치는 데에는 미국의 무역 적자가 지속 심화한 점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 2024년 미국의 무역수지(상품 교역 기준)는 약 1.2조 달러 적자로 이는 역대 최대 적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무역 적자에 중국, 멕시코, 베트남 등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특히 중국은 미국의 지속된 무역 제재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후로 미국의 최대 무역수지 적자국 지위를 유지하였다. 한편, 미국의 對 한국 무역 적자가 확대됨에 따라 한국은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미국의 8번째 무역수지 적자국 지위를 유지하였다. 품목별로는 도로 주행 차량, 사무용 기계 및 자동차용 처리장치, 전기기계장치와 기기 등이 미국의 무역 적자에 기여하였다. 이처럼 미국의 무역구조를 살펴본 결과,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별·품목별 관세 정책은 미국의 무역 적자국 및 무역 적자 발생 품목이 대상인 것으로 확인된다.

< 미국의 수출입 증가율 및 무역수지 >



자료 : 미국 인구조사국.

- 주1) 상품 교역 기준.
- 주2) 증가율은 전년비 기준.

<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상위 국가 >

순위	국가	무역수지(십억\$)
1	중국	-295.4
2	멕시코	-171.8
3	베트남	-123.5
4	아일랜드	-86.7
5	독일	-84.8
6	대만	-73.9
7	일본	-68.5
8	한국	-66.0
9	캐나다	-63.3
10	인도	-45.7

자료 : 미국 인구조사국.

- 주1) 상품 교역 기준.
- 주2) 2024년 기준.

■ 對美 수출 구조 분석

(전체 對美 수출) 한국의 對美 수출 관련 주요 실적은 트럼프 1기 행정부('17년~'20년) 대비 바이든 행정부('21년~'24년) 들어 큰 폭으로 개선되면서 한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對美 수출 규모는 바이든 행정부 시기 첫해인 2021년 959억 달러에서 마지막 해인 2024년 1,278억 달러로 연평균 10.0% 증가하며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의 증가세(연평균 2.6%)를 크게 상회하였다. 이에 총 수출 대비 對美 수출 비중도 트럼프 1기 행정부 마지막 해인 2020년 14.5%에서 2024년 18.7%로 4.2%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수출) 특히, 對美 수출 주요 5대 수출 상품의 실적도 바이든 행정부에서 전반적으로 개선되어 5대 품목 내에서 실적 편차가 존재했던 트럼프 1기 시기와는 대조적이었다. 바이든 행정부 시기 5대 수출 품목(자동차, 반도체, 자동차부품, 컴퓨터, 석유제품)의 수출액은 2021년 433억 달러에서 2024년 645억 달러로 연평균 14.2% 증가

하였으며, 비중도 50.5%로 확대되며 한국의 對美 수출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회 수출) 한국의 對美 우회 수출 비중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 첫 해인 2017년 10.2%에서 마지막 해인 2020년 10.9%로 소폭 상승하였으며, 산업별로는 서비스업 등의 증가세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OECD TiVA(2023)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의 對美 우회 수출 규모를 추정된 결과, 2020년 기준 한국의 對美 우회 수출은 약 440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되어 총 수출(부가가치 기준)의 10.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광업, 제조업 등은 감소세를 기록한 한편, 농림어업, 서비스업 등은 증가 폭이 컸던 것으로 나타나 향후 관세 및 비관세 장벽 포함 정책의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종합)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전 세계 대부분 품목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점을 고려할 때, 관세의 영향을 받을 수출 규모는 직접 수출과 우회 수출을 포함하여 GDP의 약 9.4%에 이르는 수준으로 판단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의 핵심인 상호 관세가 전 세계 180개국을 대상으로 부과된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對美 직접 수출은 물론이고 제3 경유국을 통한 수출도 모두 관세 정책의 영향인 상황이다. 비교의 편의를 위해 한국의 對美 수출 규모를 GDP 대비 비중으로 환산하면, 총 수출은 약 6.8%, 우회 수출은 약 2.5%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어 관세 정책의 영향을 받을 수출 규모는 GDP의 약 9.4%에 달할 것으로 우려된다.

< 한국의 對美 수출 규모 및 비중 총괄 >

	규모	수출 대비 비중	GDP 대비 비중
총 수출(통관 기준)	1,278억 달러	18.7%	6.8%
우회 수출(부가가치 기준)	440억 달러	10.9%	2.5%

자료 : 한국무역협회, OECD TiVA(2023), 현대경제연구원.

주1) 각 지표별 가장 최신 연도 기준으로 총수출은 2024년, 우회 수출은 2020년 기준.

2) GDP는 명목 기준.

■ 시사점

對美 수출이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예상보다 강도가 높고 정책의 변동성 또한 높은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글로벌 통상 환경 급변에 대응하여 민관의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호 관세 정책으로 직접 수출은 물론 경유국을 통한 우회 수출도 크게 영향받을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한국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해 온 수출 경기 회복력이 약화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수출시장에 대한 접근 전략의 변화는 물론이고 수출 경기 침체가 내수 불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펀더멘탈 강화 노력도 요구된다. 넷째, 글로벌 교역 환경 악화와 더불어 미국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져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시시각각 변화해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 기업을 중심으로 경제 주체들의 추가적인 심리 악화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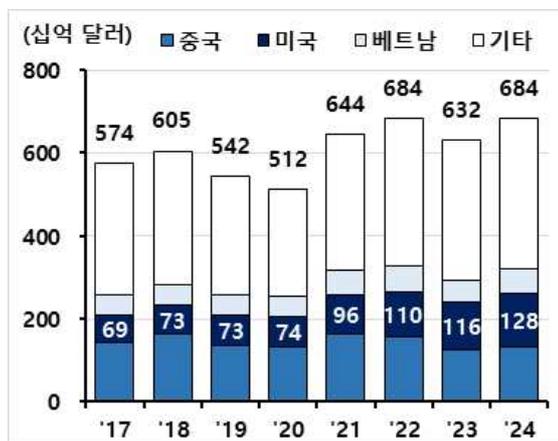
-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통상 전쟁이 격화됨에 따라 한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출이 둔화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
 - 미국의 관세 정책이 본격화한 가운데 상대국들이 보복 조치로 대응하면서 글로벌 통상 전쟁이 격화
 - 미국의 국가별·품목별 관세 부과 및 이에 대응한 상대국들의 보복 조치로 2025년 3월 무역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역대 최고치인 603.1p를 기록
 - 통상 환경이 악화하면서 한국 경제의 성장을 주도해 온 수출의 둔화 가능성 확대 및 이에 따른 경기 하방 압력 증대가 우려됨
 - 한국은 수출주도형 경제 구조로 수출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큼
 - 특히, 2024년에는 내수 및 순수출의 GDP에 대한 성장 기여도가 각각 0.1%p, 1.9%p를 기록, 수출이 내수 부진을 상쇄하면서 성장을 견인
- **이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살펴보고 한국의 對美 수출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자 함**
 - 2024년 한국의 對美 수출액이 역대 최고인 약 1,280억(전체 수출액의 18.7%) 달러를 기록하는 등 對美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경제에 미칠 타격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

< 글로벌 무역정책 불확실성 지수 >



자료 : Trade Policy Uncertainty Index¹⁾.

< 한국의 주요 상대국별 수출 >



자료 : 한국무역협회.

1) <https://www.matteiacoviello.com/tpu.htm>.

2. 트럼프 관세 정책과 배경

① 현황

-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 무역 구조 재균형화, 국가 안보 강화, 자국 산업 보호 등의 명목하에 관세 정책을 추진
- 미국은 중국·캐나다·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한 것을 시작으로 철강·알루미늄 등의 품목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10~125%의 관세를 부과
 -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인 관세 인상으로 미국의 가중 평균 관세는 2024년 2% 수준에서 2025년 4월 24% 수준까지 상승한 것으로 추정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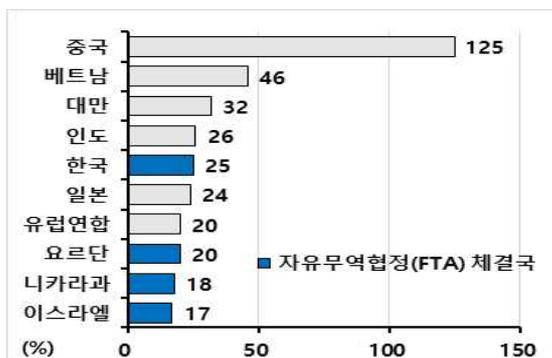
< 미국의 관세 부과 현황 >

발효일	국가·품목	내용
2월 4일	중국	10% 추가 관세 부과
3월 4일	중국	10% 추가 관세 부과
	캐나다·멕시코	25% 관세 부과
3월 12일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
4월 2일	베네수엘라산 석유·가스 수입국(중국, 인도 등)	25% 관세 부과
4월 3일	자동차	25% 관세 부과
4월 5일	전 세계 국가 ³⁾	10% 보편 관세 부과
4월 9일 ⁴⁾	57개국(중국, 베트남, 한국 등) ⁵⁾	11~125% 상호 관세 부과

자료 : 보도자료 종합.

주 : 2025년 4월 14일 기준.

< 미국의 주요국 상호 관세율 >



자료 : 백악관.

< 미국 평균 관세율 >



자료 : Tax Foundation, The Economist.

주 : 2024~2025년은 추정치.

2) "Trump takes America's trade policies back to the 19th century." The Economist, 3 Apr 2025.
 3)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구리·의약품·반도체·목재,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품목, 금과, 에너지 및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특정 광물, 미국·캐나다·멕시코 무역협정(USMCA) 적용 품목 등은 제외.
 4) 중국을 제외한 국가는 90일간 유예.
 5) 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칩,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은 제외.

② 배경

- **트럼프 행정부가 공격적인 관세 정책을 펼치는 데에는 미국의 무역 적자가 지속 심화한 점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
 - 2024년 미국의 무역수지(상품 교역 기준)는 약 1.2조 달러 적자로 이는 역대 최대 적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남
 - 2024년 미국의 수출은 약 2.1조 달러로 전년비 2.3% 증가하였으나, 수입이 6.1% 증가한 약 3.3조 달러를 기록하며 무역수지 적자 폭이 확대
 - 미국의 무역 적자에 중국, 멕시코, 베트남 등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됨
 - 2024년 기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중국(약 2,954억 달러), 멕시코(약 1,718억 달러), 베트남(약 1,235억 달러) 순으로 큼
 - 특히, 중국은 미국의 지속된 무역 제재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후로 미국의 최대 무역수지 적자국 지위를 유지
 - 한편, 미국의 對 한국 무역 적자가 확대됨에 따라 한국은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미국의 8번째 무역수지 적자국 지위를 유지
 - 2024년 미국의 對 한국 무역 적자는 역대 최대치인 약 66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무역 적자 규모가 8번째로 큰 국가에 해당
 - ※ 미국의 무역 적자국 한국 순위: ('21) 14위 → ('22) 9위 → ('23) 8위 → ('24) 8위

< 미국의 수출입 증가율 및 무역수지 >



자료 : 미국 인구조사국.
 주1) 상품 교역 기준.
 2) 증가율은 전년비 기준.

<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상위 국가 >

순위	국가	무역수지(십억\$)
1	중국	-295.4
2	멕시코	-171.8
3	베트남	-123.5
4	아일랜드	-86.7
5	독일	-84.8
6	대만	-73.9
7	일본	-68.5
8	한국	-66.0
9	캐나다	-63.3
10	인도	-45.7

자료 : 미국 인구조사국.
 주1) 상품 교역 기준.
 2) 2024년 기준.

- 품목별로는 도로 주행 차량, 사무용 기계 및 자동자료 처리장치, 전기기계장치와 기기 등이 미국의 무역 적자에 기여
 - 2024년 도로 주행 차량 무역 적자는 약 2,408억 달러로 멕시코(약 1,075억 달러), 일본(약 478억 달러), 한국(약 415억 달러) 순으로 무역 적자가 크게 발생
 - 사무용 기계 및 자동자료 처리장치 무역 적자는 약 1,417억 달러로 대만(약 470억 달러), 중국(약 430억 달러), 멕시코(약 323억 달러) 등에서 무역 적자가 크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전기기계장치와 기기는 약 1,375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 그중 중국 약 425억 달러, 멕시코 약 207억 달러, 베트남 약 132억 달러인 것으로 분석
- 미국의 무역구조를 살펴본 결과,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별·품목별 관세 정책은 미국의 무역 적자국 및 무역 적자 발생 품목이 대상인 것으로 확인
 - 미국은 중국, 베트남 등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상위국에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였으며, 품목 중에서는 자동차 등과 같은 무역 적자가 크게 발생하는 품목에 관세를 부과
 - 한국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20개국 중 캐나다·멕시코와 함께 가장 높은 관세율을 부과받은 것도 이로 설명됨

<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상위 품목6) >

SITC 코드	품목	무역수지 (십억\$)	품목 무역수지 적자 상위 3개국
78	도로 주행 차량	-240.8	멕시코, 일본, 한국
75	사무용 기계 및 자동자료 처리장치	-141.7	대만, 중국, 멕시코
77	전기기계장치와 기기	-137.5	중국, 멕시코, 베트남
54	의약품 및 약제제품	-126.2	아일랜드, 스위스, 싱가포르
76	통신 및 녹음기기	-116.3	중국, 베트남, 멕시코
84	의복제품 및 의복부속품	-81.3	중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74	산업용 일반기계 및 장비	-62.7	중국, 멕시코, 독일
82	가구 및 부분품	-48.8	중국, 베트남, 멕시코
69	달리 명시되지 않은 금속제품	-36.7	중국, 대만, 인도
71	원동기기 및 설비	-36.3	일본, 독일, 멕시코

자료 : 미국 인구조사국.

주1) 상품 교역 기준.

2) 2024년 기준.

6)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잡제품(89)과 종류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특수 취급물(93)도 상위 품목에 포함되거나 분석 편의를 위해 제외.

3. 對美 수출 구조 분석

○ (전체 對美 수출) 한국의 對美 수출 관련 주요 실적은 바이든 행정부(21년~24년) 들어 큰 폭으로 개선되며 한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확대

- 바이든 행정부 들어 한국의 對 미국 수출 규모 및 비중이 크게 확대
 - 한국의 對美 수출액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첫 해인 2017년 686억 달러에서 마지막 해인 2020년 741억 달러로 연평균 2.6% 증가
 -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는 첫 해인 2021년 959억 달러에서 마지막 해인 2024년 1,278억 달러로 연평균 10.0% 증가하며 규모가 크게 확대
 - 이에 한국의 총수출 대비 對美 수출 비중도 트럼프 1기 행정부 마지막 해인 2020년 14.5%에서 2024년 18.7%로 4.2%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對美 수출액 및 비중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비중 = (對美 수출/총수출)×100.

< 對美 수출 · 수입 · 무역수지 >

트럼프 1기	수출 증가율	수입 증가율	무역수지	연평균 증가율 (%)				
				수출	수입			
'17	3.2	17.4	179	2.6				
'18	6.0	16.0	139					
'19	0.9	5.1	115					
'20	1.1	-7.1	166					
바이든	수출 증가율	수입 증가율	무역수지	연평균 증가율 (%)				
				수출	수입			
				'21	29.4	27.3	227	10.0
				'22	14.5	11.7	280	
'23	5.4	-12.9	444					
'24	10.4	1.2	556					

자료 : 한국무역협회.

○ (품목별 수출) 주요 5대 수출 상품의 수출 실적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전반적으로 개선

- 바이든 행정부 시기 對美 주요 5대 수출 상품의 수출 규모와 비중이 확대
 -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 5대 수출 품목의 수출은 330억 달러(2017년)에서 361억 달러(2020년)로 연평균 3.0% 증가에 그쳤으나,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는 433억 달러(2021년)에서 645억 달러(2024년)로 연평균 14.2% 증가

- 對美 총수출에서 5대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도 트럼프 1기 마지막 해인 2020년 48.7%에서 바이든 행정부 마지막 해인 2024년 50.5%로 확대
- 특히,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에는 5대 품목 내에서도 실적 편차가 존재하였던 반면,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는 5대 품목 전반의 증가세가 확대
 -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는 자동차를 중심으로 수출 상위 5대 품목이 모두 증가하며 對美 수출 증가를 견인

< 5대 품목 수출 실적 총괄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비중 = (5대 품목 對美 수출 합계/총 對美 수출)×100.

< 5대 품목별 수출 실적 >

트럼프 1기	연평균 증가율(%)
합계	3.0
자동차	2.5
반도체	30.2
자동차부품	△1.0
컴퓨터	22.2
무선통신기기	△21.0
바이든	연평균 증가율(%)
합계	14.2
자동차	26.5
반도체	5.7
자동차부품	5.9
컴퓨터	1.9
석유제품	2.5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품목은 MTI 3단위 기준.

○ (우회 수출) 한국의 對美 우회 수출 비중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 10% 내외 수준에서 소폭 상승

- 우회 수출이란 한국이 경유국을 통해 최종 소비국(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으로, 중간재 수출이 많은 한국 수출 구조 특성상 중요한 개념
 - 우회 수출 추정을 위해 OECD Trade in Value Added(이하 TiVA, 2023)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TiVA는 부가가치 기준으로 최종 소비국을 식별한다는 점에서 우회 수출 규모를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자료
 - 구체적으로는 제 3 경유국에 수출된 한국의 전체 부가가치 규모에 세계 총 부가가치 최종 소비 대비 미국의 최종 소비 비중을 고려하여 산출⁷⁾

7) 단, 구체적인 경유국 자료의 부재로 정확한 규모 추정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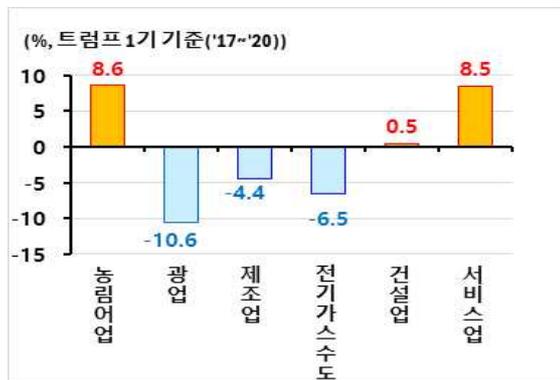
- 산출 결과 2020년 기준 한국의 對美 우회 수출은 440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총 수출(부가가치 기준)의 10.9% 수준으로 분석
-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 우회 수출은 광업 등을 중심으로 감소한 한편, 서비스업 등은 증가
 - 對美 우회 수출은 2017년 450억 달러에서 2020년 440억 달러로 연평균 △ 0.8% 감소하였으며, 광업, 제조업 등의 감소 폭이 컸던 한편, 서비스업 등은 증가 폭이 컸던 것으로 추정

< 對美 우회 수출 규모 및 비중 >



자료 : OECD TIVA(2023), 현대경제연구원.
주 : 부가가치 기준.

< 산업별 우회 수출 연평균 증가율 >



자료 : OECD TIVA(2023), 현대경제연구원.
주 : 산업은 ISIC Rev.4 분류 기준.

- (종합)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이 전 세계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점을 고려할 때, 관세의 영향을 받을 수출 규모는 GDP의 약 9.4%에 이르는 규모로 판단
-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의 핵심인 상호 관세가 전 세계 180개국을 대상으로 부과된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對美 직접 수출은 물론이고 제3 경유국을 통한 수출도 모두 관세 정책의 영향인 상황

< 한국의 對 미국 수출 규모 및 비중 총괄 >

	규모	수출 대비 비중	GDP 대비 비중
총 수출(통관 기준)	1,278억 달러	18.7%	6.8%
우회 수출(부가가치 기준)	440억 달러	10.9%	2.5%

자료 : 한국무역협회, OECD TIVA(2023), 현대경제연구원.
주1) 각 지표별 가장 최신 연도 기준으로 총수출은 2024년, 우회 수출은 2020년 기준.
주2) GDP는 명목 기준.

4. 시사점

- 對美 수출이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예상보다 강도가 높고 정책의 변동성 또한 높은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

첫째, 글로벌 통상 환경 급변에 대응하여 민·관의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 트럼프 2기의 관세 정책은 국가 및 품목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전개되므로 1기 때보다 글로벌 통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한국 경제에서 對美 수출이 차지하는 위상도 높아져 그 영향력이 더욱 클 것으로 우려됨
- 이에 통상 환경 급변에 대응하여 시나리오별 대응책과 협상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트럼프 2기의 관세 정책이 정책 변동성도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
- 구체적으로는 정부 및 관련 기관과 기업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정보를 지속해서 공유하는 등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야 하며, 이를 토대로 분쟁 발생 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될 필요
 - 특히, 중소 수출기업의 경우 관세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와 자본 등 자원의 한계가 존재하므로 정부 차원에서 통상 대응을 지원하고, 수출 보험 등의 지원 확대가 검토되어야 함

둘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호 관세 정책으로 직접 수출은 물론 경유국을 통한 우회 수출도 크게 영향받을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 트럼프 1기 시기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심화함에 따라 일부 기업의 경우 베트남 등의 동남아 국가로 생산 거점을 대체하거나, 미국 현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등 현지 생산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공급망을 재편

- 그러나 2기 관세 정책의 핵심인 상호 관세 정책을 통해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대부분 국가에 대해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면서 우회 수출 전략을 피했던 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
- 이에 중장기적으로는 특정 국가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을 분산하기 위한 노력이 검토될 수 있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물류비용 상승 등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될 필요
- 한편, 최근 對美 우회 수출이 급증한 서비스업과 농림어업 부문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핵심 이슈로 다루고 있는 분야로 관세는 물론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교섭을 통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전 대응책 마련 필요

셋째, 한국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해 온 수출 경기 회복력이 약화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수출시장에 대한 접근 전략의 변화는 물론이고 수출 경기 침체가 내수 불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펀더멘탈 강화 노력도 요구된다.

- 현재 한국 수출은 미국과 중국 등 특정 시장과 반도체와 자동차 등 특정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완충 능력이 매우 약화된 상황
- 중장기적으로는 대중 수출과 동남아 수출이 중간재 중심에서 최종재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며, 인도 및 아세안, 아프리카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규 시장에 대한 진출 확대를 통해 수출시장 외연을 확장하는 노력이 요구됨
- 또한, 통상 환경 악화가 국내 경제 리스크 요인과 결합하지 않도록 국내 경제 안정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며, 소비 등 내수의 회복력이 미약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민간 부문의 실질 구매력 확충을 위한 내수 활성화 노력을 통해 수출 경기 둔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필요가 있음

넷째, 글로벌 교역 환경 악화와 더불어 미국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져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 트럼프 2기 관세 정책이 발표된 이후 글로벌 자산시장과 환율 변동성이 크게 높아진 상황
- 트럼프 2기 관세 정책이 무역 적자 해소, 즉 자국 우선주의 관점에서 진행됨에 따라 미국 외 국가의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특히, 한국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과 결합하면서 변동성이 크게 상승
- 이에 금융 당국은 국내 금융 및 자산시장의 건전성 제고와 해외투자 자본 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금융시장 변동성 대응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시시각각 변화해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 기업을 중심으로 경제 주체들의 추가적인 심리 악화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

- 국내 경제 주체들의 경우, 장기화되고 있는 정치 불확실성과 내수 침체 등으로 심리 악화가 진행 중인 상황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의 강도가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고, 예측 가능성도 현저히 낮거나 우방에게도 치명적인 정책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역시 추가적인 기업 심리 악화 요인
- 따라서, 국내적으로는 기업 경영환경 개선 의지의 실천은 물론 통화 및 재정 양 측면에서의 강력한 경기 대책 추진 등 전방위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 **HRI**

신 지 영 연 구 위 원 (2072-6240, jyshin@hri.co.kr)
노 시 연 연 구 위 원 (2072-6248, syroh@hri.co.kr)